

# 서비스산업에서의 지역별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

박 종 태\* · 김 동 철\*\*

## 목 차

요약	2.2 시도별 비교분석
1. 서론	3. 요약 및 결론
2.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비교 분석	참고문헌
2.1 권역별 비교분석	Abstract

## 요약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이 최근 수년 동안 매우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상대비율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별 변화도 이 두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상대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각 권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제어: 서비스산업, 고용률, 상대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

접수일(2012년 9월 4일), 수정일(1차: 2012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9월 10일)

\*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 jtpark@ptu.ac.kr

\*\* 평택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kim@ptu.ac.kr

## 1. 서론

대다수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도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9.3%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서비스 부문의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점점 더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직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부문의 확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진행된 국내외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김휘석 외(2002)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최근 기술발달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 잠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여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하였으며, 김현정(2006) 및 하봉찬(2006)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였다. 그 외 허재준·서환주, 이영수(2007)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김주훈(2008)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황수경(2008)은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의 변동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노동시장의 실업 및 고용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통계작성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에서 학생, 주부, 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이다. 취업자 중에서 실직을 한 사람이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는 변동이 없고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만 변동이 되므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불경기 등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실망실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게 되어 실업률 지표에는 제외되게 되어 통계상의 실업률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새롭게 구직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고용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로 포함되므로 실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는 변화하게 되어 실업률이 변동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률은 단순히 실업자 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경계상태에 있는 한계적 참가자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실업률 자료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망실업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고용률 이외에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 등 여러 변수들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시장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

해서는 김기호, 장동구(2005)가 노동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업을 이외에 고용률의 노동 시장에서의 정보변수로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대일(2000)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분석한 것이 있으며, 문외술(2008)이 노동시장 변수들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제 활동참여확률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시장의 지역 간 비교를 실증 분석한 연구로는 전병유(2006)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성장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 전국 및 권역별 고용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전체 고용률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의 변화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로서 첫째,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지만, 고용률의 변동계수는 강원권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기별 변화도 이 두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상대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각 권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1절에서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의 크기와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제 2.2절에서는 각 권역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 비교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2.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비교 분석

### 2.1 권역별 비교분석

먼저,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권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KOSIS(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중 2004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와 연별 자료이다.

표 1은 전국 및 각 권역별로 전체 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단위: %)을 요약한 것으로 괄호안의 숫자는 시기별 고용률의 변동성을 각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한 변동계수이다. 이 표에서 보면 전체 산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호남권(60.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57.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43.4%)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36.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인 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강원권(5.23%)과 충청권(2.85%)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강원권 > 호남권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전체 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변동계수를 각 권역별로 비교한 막대그래프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강원권에서의 변동계수가 전체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기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전체 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  
Tab 1. Average Employment Rate by Overall and Service Industry

권역	전체	서비스업
전국	59.4(1.57)	40.0(1.80)
수도권	59.6(1.32)	43.4(2.01)
강원권	57.4(5.23)	39.9(3.26)
충청권	59.6(2.85)	37.8(1.51)
호남권	60.1(1.81)	37.1(2.38)
영남권	58.7(1.58)	36.4(1.19)

출처: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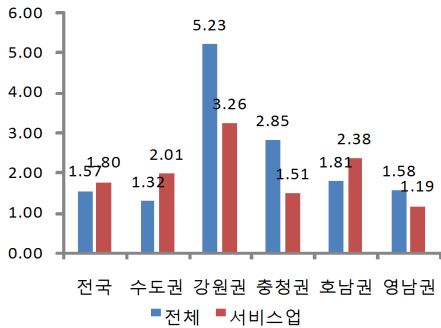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에 대한 변동계수  
Fig. 1. Change Coefficient by Overall and Service Industry

그림 2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년별 고용률을 표준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림을 보면 각 권역별로 서비스업 고용률의 양상이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 기간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강원, 충청, 호남권은 증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영남권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체 고용률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서비스업 고용률/전체 고용률×100.0)을 알아보자. 그림 3은 서비스업 고용률의 평균 상대비율을 각 권역별로 비교한 막대그래프이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72.8%)과 강원권(69.8%)의 평균 상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충청, 호남, 영남권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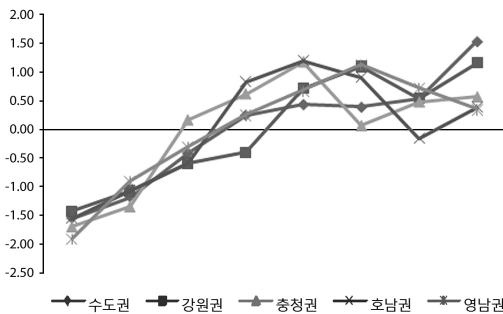


그림 2. 각 권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Fig. 2.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s Servic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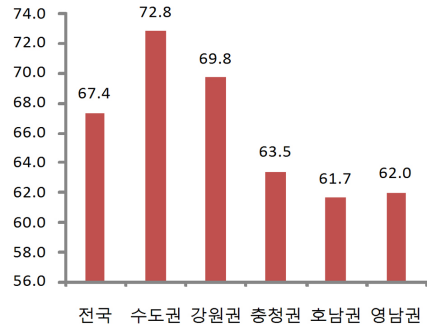


그림 3. 권역별 서비스업 고용률의 평균 상대비율  
Fig. 3. Relative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s Service Industry

표 2는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에 대한 시기적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년별로 나타낸 표이고 그림 4는 서비스업 고용률의 년별 상대비율을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강원권의 상대비율이 전 기간에 걸쳐 기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 호남, 영남권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적인 변화를 보면 권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권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세 권역은 전체적으로는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권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2.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s Service Industry

연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2004	70.1	66.1	61.8	60.0	60.1
2005	70.7	67.2	62.8	60.2	60.9
2006	71.7	67.5	63.4	60.8	61.5
2007	72.6	68.5	63.1	62.2	61.9
2008	73.3	70.8	64.1	62.9	62.4
2009	74.7	71.5	64.0	62.6	63.6
2010	74.4	72.3	64.4	62.1	63.2
2011	75.3	73.4	64.1	62.7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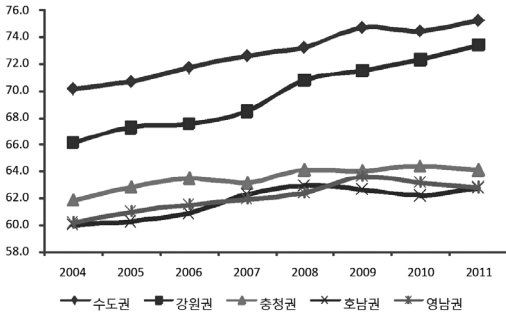


그림 4. 서비스업 고용률의 권역별 상대비율  
Fig. 4. Relative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s Service Industry

### 2.2 시도별 비교분석

이 절에서는 각 권역에 속한 시도별로 서비스업에 있어서 평균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평균 고용률과 평균 상대비율을 작성해 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권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광역시가 도지역보다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평균 상대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수도권에 속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서비스업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의 시기적인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5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을 각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년별 고용률을 표준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이고 표 4는 서비스업 고용률의 년별 상대비율을 각 지역별로 나타낸 표이고 그림 6은 표 4의 자료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의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과 인천은 비슷하고 경기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개 지역 모두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이 시기에 따라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비율의 변화를 그림 6을 통해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그림

표 3. 각 권역의 시도별 서비스업 평균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3. Average and Relative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s Service Industry

권역	시도	평균 고용률 (서비스업)	평균 상대비율
수도권	서울	47.0	78.9
	인천	38.6	65.2
	경기	41.3	69.1
충청권	대전	44.4	77.9
	충북	35.2	59.9
	충남	34.8	56.0
호남권	광주	41.7	74.1
	전북	34.2	59.1
	전남	34.0	53.8
	제주	44.9	66.8
영남권	부산	40.3	73.2
	대구	39.8	69.4
	울산	32.4	55.3
	경북	33.1	52.7
	경남	33.3	55.2

출처: 통계청 KOSIS.

을 보면 상대비율의 크기가 전 기간에 걸쳐 『서울 > 경기 > 인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 모두 시기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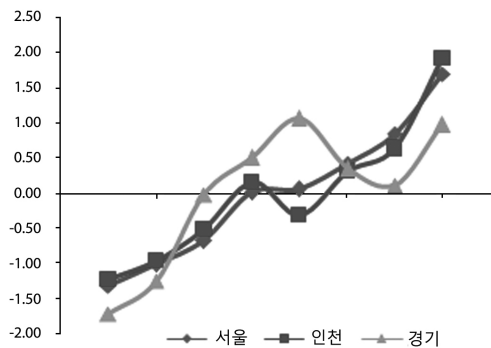


그림 5. 수도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Fig. 5. Employment Rate by Capital Region's Service Industry

표 4. 수도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4. Relative Employment Rate by Capital Region's Service Industry

년도	서울	인천	경기
2004	75.8	63.0	66.1
2005	76.1	64.0	66.9
2006	77.0	64.4	68.5
2007	78.0	65.3	69.4
2008	79.0	64.9	70.0
2009	81.8	66.1	70.6
2010	81.5	66.4	70.1
2011	82.0	67.7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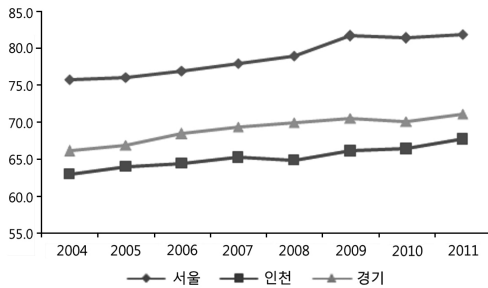


그림 6. 수도권 각 지역에 대한 상대비율 비교  
 Fig. 6. Relative Employment Rate Comparative by Capital Region's Service Industry

다음은 충청권에 속한 지역별 서비스업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7을 통해 충청권의 서비스업 고용률을 각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세 지역 모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변화를 보면 대전과 충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충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그리고 표 5와 그림 8에서 충청권의 상대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전 > 충북 > 충남」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의 변화를 보면 충남 지역은 대전, 충북과 달리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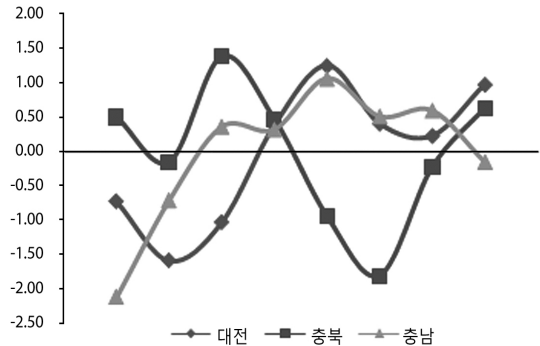


그림 7. 충청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Fig. 7. Employment Rate by Choongcheong Region's Service Industry

표 5. 충청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5. Relative Employment Rate by Choongcheong Region's Service Industry

년도	대전	충북	충남
2004	76.5	60.8	52.3
2005	76.9	60.5	54.6
2006	77.3	61.7	55.1
2007	78.5	60.6	54.4
2008	78.7	58.7	57.5
2009	78.0	57.9	58.3
2010	78.2	58.9	58.5
2011	78.8	59.6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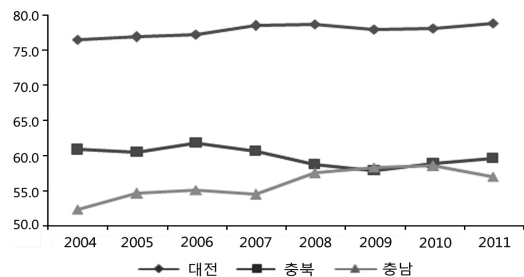


그림 8. 충청권 각 지역에 대한 상대비율 비교  
 Fig. 8. Relative Employment Rate by Choongcheong Region's Service Industry

그림 9는 호남권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각 지역의 상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남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광주와 제주는 감소 내지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남권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표 6과 그림 10에서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 기간을 통해 「광주>제주>전북>전남」의 크기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시기의 변화를 보면 전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와 전남, 제주는 보합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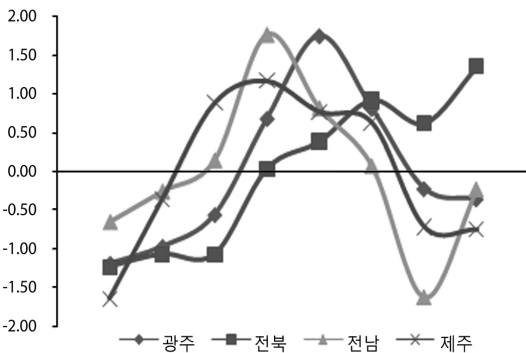


그림 9. 호남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Fig. 9. Employment Rate by Honam Region's Service Industry

표 6. 호남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6. Relative Employment Rate by Honam Region's Service Industry

년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004	72.4	57.6	53.3	62.6
2005	72.2	57.6	53.2	64.9
2006	73.8	56.9	53.7	67.3
2007	75.4	58.0	54.7	68.7
2008	78.1	59.0	54.1	67.9
2009	75.8	60.5	53.3	68.6
2010	72.7	60.9	53.5	67.6
2011	72.9	61.8	54.5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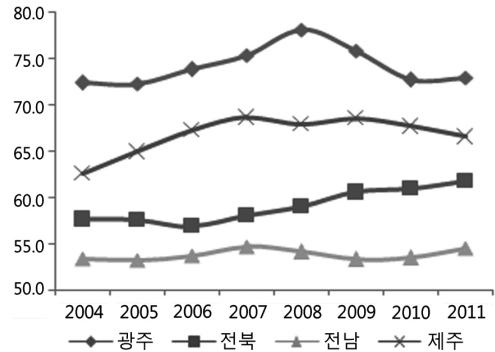


그림 10 호남권 각 지역에 대한 상대비율 비교  
Fig. 10. Relative Employment Rate Comparative by Honam Region's Service Industry

마지막으로 영남권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의 추세적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11을 보면 울산의 서비스업 고용률만 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4개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증가, 감소를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대구와 경북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7과 그림 12로 부터 각 지역의 상대비율을 비교해 보면 부산과 대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과 경남은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나 나머지 3개 지역은 보합 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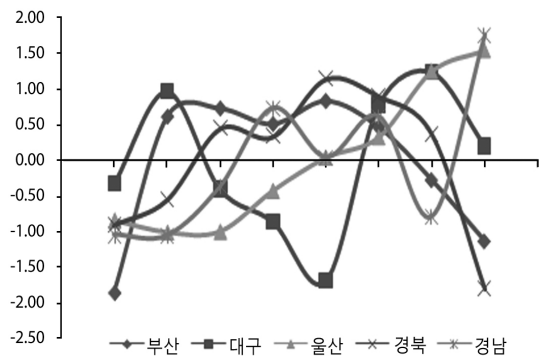


그림 11. 영남권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Fig. 11. Employment Rate by Youngnam Region's Service Industry

표 7. 영남권 각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7. Relative Employment Rate by Youngnam Region's Service Industry

년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004	71.5	67.6	51.0	50.8	53.3
2005	72.8	68.5	50.9	51.3	54.1
2006	72.6	68.7	51.8	52.8	54.9
2007	72.5	69.2	53.2	53.1	55.7
2008	73.8	69.8	54.8	54.4	54.7
2009	74.9	70.8	57.6	54.6	56.4
2010	74.1	70.3	61.3	53.5	55.6
2011	73.4	70.1	62.0	51.0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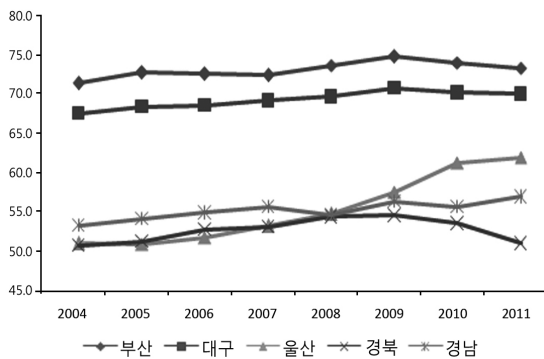


그림 12. 영남권 각 지역에 대한 상대비율 비교  
 Fig. 12. Relative Employment Rate Comparative by Youngnam Region's Service Industry

### 3.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노동시장의 실업 및 고용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통계작성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실업률 자료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망실업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중요한 지표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지만, 고용률의 변동계수는 강원권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기별 변화도 이 두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상대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각 권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서비스업 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호남권에서는 전북 지역만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며 영남권에서는 울산이 서비스업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변화 양상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므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접근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률의 상대비율의 특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1]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11(2), 106-135.
- [2] 김대일 (2000), “한계적 경제활동참가자와 실업”,



- 한국경제의 분석, 6(1), 1-68.
- [3] 김주훈 (2008),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4] 김현정 (2006),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12(4), 35-76.
- [5] 김휘석, 이건우, 이항구, 박진수, 최영섭 (2002),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산업연구원.
- [6] 문외술 (2008), 한국 노동시장 변수들의 단기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경제분석, 14(4), 113-150.
- [7]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 205-234.
- [8]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연보.
- [9] 하봉찬 (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10] 허재준, 서환주, 이영수 (2007),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11] 황수경 (2008),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 노동정책연구, 8(1), 27-62.



**박 종 태 (Jong T. Park)**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에서 전산통계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계청에 재직하였으며, 관심분야는 회귀분석, 선형모형, 소지역추정 등이다. 주요 논문은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응용통계연구, 지식서비스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한국지역경제연구, 통계연구 등의 학술지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자료분석학회, 한국통계학회 등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 동 철 (Dong C. Kim)**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평택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터넷 기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등이다. 디지털 콘텐츠학회, 인터넷 정보학회, 정보과학회 등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A Analytical Study on the Change of Regional Employment Rate in the Service Industry

Jong T. Park\* · Dong C. Kim\*\*

## ABSTRACT

For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service industry and its relative ratio. These changes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whether it is Seoul metropolitan region or not.

According to main results of this article, the average of employment rate in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highest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changes by period of the employment-rate in the service industry have increased continuously for all the time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ereas they have varied in other regions. Also the relative ratio of employment rate in the service industry to total employment rate has been more higher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Gangwon region than other regions, and also the changes by period of the relative ratio have more increased in these two regions than other regions. Finally, comparing metropolitan city regions with do regions for the average of employment rate in the service industry or the relative ratio of it, they have more higher in metropolitan city regions than do regions, whereas the changes by period of them have varied with each other regions.

*Keywords: Service Industry, Employment Rate, Relative Rati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 Pyeongtaek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Statistics, Professor, jtpark@ptu.ac.kr

\*\* Pyeongtaek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Professor, kim@ptu.ac.kr